

호남권 경기 악화

제조업·서비스업 생산 감소, 고용률·수출 실적 하락 1·2월 경기 회복세 둔화...기업들 리스크 대비책 분주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으로 지역 경제 회복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부진과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 탓이다.

지난 2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의 권역별 생산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내 대부분 지역은 전분기와 비슷한 회복 수준을 나타냈지만 호남권은 소폭 감소했다.

또 지난 1~2월 중 호남권 경기는 2015년 4·4분기에 비해 회복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중 취업자 수는 2015년 4·4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고 고용률도 소폭 하락했다. 수요측면에서는 소비 및 건설투자가 소폭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보험 수준을 나타내었다.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지속하였고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보합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전남·북 주요 제조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호남지역 제조업체 60개를 대상으로 업황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업체의 83.3%가 올해 흑자를 예상했다.

특히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42.0%)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축소(30.0%)도 상당수 차지했다. 또 조사대상업체의 58.3%는 올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증가 폭은 5% 미만이라는 응답의 비중(28.3%)이 가장 높았다.

경영 리스크 요인은 수출부진 지속(41.7%), 내수 회복세 미약(36.7%) 등의 순이

었으며 수출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등 수출대상국의 경기둔화(45.1%)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지역업체들은 수출 리스크에 대비해 글로벌 마케팅 강화(30.0%), R&D 투자 확대 및 신제품 출시(30.0%),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 등 긴축경영(26.0%)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번 모니터링 결과, 1~2월 중 호남권 경기는 2015년 4·4분기에 비해 다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제조업의 업황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등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며 "특히 연초부터 급감한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자영업자 “못살겠네”

통계청 가계소득 분석...전체 48% 3년째 소득 그대로 중산층·60세 이상 가구 소득 수준 크게 하락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과 자산산계층 하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소득분위가 그대로 유지된 가구 비율은 자영업자가 47.9%로 가장 낮았다.

월급쟁이가 대부분인 임금근로자는 54.4%, 무직자·주부·학생 등을 포함한 기타는 69.1%의 소득분위가 그대로였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소득분위가 하락한 가구보다 상승한 가구가 4%포인트 많았지만, 자영업자는 4.7%포인트 적었다.

자산산의 경우에도 자영업자의 계층하락 비율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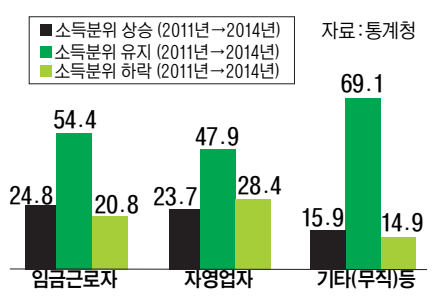
2011~2014년 3년간 자산분위가 떨어

어진 자영업자 비율은 22.0%에 달했다. 반면 임금근로자는 16.3%, 기타는 18.5%였다. 빈곤진입률 역시 자영업자(9.1%)가 임금근로자(6.9%)보다 더 높았다.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사정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60세 이상이 가구주인 가구 20.9%의 소득분위가 3년 새 하락세를 보였다. 소득분위가 상승한 가구 비율은 14.8%, 유지한 가구는 64.3%였다.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와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4분위(소득 상위 20~40%)의 소득분위 하락이 두드러졌다. 2011년 5분위였던 고령층 가구 54.5%의 소득 수준이 내려앉았고, 4분위 가구도 53.7%의 소득 수준이 떨어졌다. 고소득층(5분위)으로 올라선 비중(16.0%)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가주주 총자산 지위별 소득분위 이동



중위소득 계층인 3분위의 경우 1·2분위로 소득이 떨어진 비중이 45.5%였다.

부동산·저축·부채 등을 합친 순자산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60세 이상의 계층 하락은 21.4%로, 2011~2013년 조사 때(17.9%)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순자산분위 하락 비율이 높은 것은 경기부진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자산규모가 줄어든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삼성, 세계 최대 곡률 '커브드 모니터' 공개
삼성전자 모델이 세계 최대 곡률 1800R(반지름이 1800mm인 원의 원점)을 구현해 시각적 편안함을 극대화하고 높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2016년형 커브드 모니터 'CF591'을 소개하고 있다. 27형의 'CF591'은 기존 모니터 대비 약 1.2배의 높은 색표현과 3000대1의 명암비를 적용 정확하고 풍부한 색상을 표현한다. <삼성전자 제공>

'주거래계좌이동' 첫 날 30만명 돌아왔다

시행 이틀 40만4839건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자동이체 계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가 시행된 첫날에 계좌 변경 신청이 30만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9일 각 은행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3단계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작한 첫날인 26일 조회 건수는 40만483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변경은 30만5071건이다. 이런 조회 건수는 계좌이동제 2단계가 시행된 작년 10월30일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에서 이뤄진 건수(20만9000여건)보다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변경 건수는 2단계 시행 첫날(2만3047건)보다 13배 넘게 급증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2단계 서비스에 호기심 때문에 페이인포 사이트에

접속한 분이 많아 계좌변경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은행을 이용하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변경서비스가 이뤄지면서 계좌변경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조회·변경·해지 서비스의 90% 이상이 은행의 모바일·인터넷·창구 서비스를 통해 이뤄졌다. 은행을 통한 접속은 38만2042건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변경은 29만7982건으로 거래의 98%가 은행을 통해 이뤄졌다. /연합뉴스

기업도 팍팍...은행 연체율 0.67%로 상승

1월 들어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전체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소폭 올랐다.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국내은행의 대출연체율 현황(잠정치)을 보면 1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7%로 작년 12월말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1월 들어 새로 발생한 연체금(1조8천억원)이 이 기간 정리된 연체채권 규모(6000억원)를 웃돈 영향이다. 다만 작년 1월 말과 비교해서는 0.04%포인트 하락했다.

은행 연체율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2012년 3분기말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체율 상승폭은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이 높았다. 1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92%로 작년 12월말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고, 작년 1월과 비교해서는 0.0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0.22%포인트 오른 1.14%를 나타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작년 1월과 비교해서도 0.52%포인트나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12%포인트 오른 0.85%를 나타냈다. 작년 1월에 비해서는 0.10%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3.55%)과 해상운

송업(1.20%)의 연체율 상승폭이 각각 0.2%포인트, 0.23%포인트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에 그쳤다. 작년 1월에 비해서는 0.17%포인트 떨어졌다.

오승원 금융원 특수은행장은 "1월말 연체율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해서는 하락하는 등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취약업종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어 위험 요인을 지속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수출중소 중동 개척단 모집

중기진흥공단 10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창범)는 광주광역시(시장 윤정현)와 공동으로 '2016년 광주광역시 중동 시장 개척단' 참가기업을 10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의 참가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인 광주광역시 소재 수출중소기업이며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중동 2개 지역(이집트 카이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파견한다. 수출참가품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참가기업은 현지 코트라 무역관의 사전 시장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고, 선정된 기업은 바이어 발굴, 단체 수출상담 주선 및 통역배치, 양복항공료(50~70%)를 지원받는다.

다만 여행사 보험, 현지 숙박비 등은 참가기업이 개별 부담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kkimy3@sbc.or.kr)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 문의는 중진공 광주지역본부(062-369-3051) 또는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062-613-3881)로 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16.66 (-3.50)	금리 (국고채 3년) 1.45% (0.00)
↑ 코스닥 651.62 (+2.32)	↓ 환율 (USD) 1236.70원 (-1.50)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자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유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여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니은행 B1동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스대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大山프리모가발